

태교에 대한 예비부모의 이미지 분석: 남녀대학생을 중심으로

임소영(任炤映)*

김은주(金銀柱)**

논문 요약

본 연구는 태교에 대해 예비부모로서 남녀대학생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에 대하여 질적 연구를 통해 연구함으로써, 오늘날의 태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 태교에 관한 예비부모들의 이미지는 네 가지 요소, 즉 주제, 시기, 목적, 내용방법의 측면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내용방법이 53.8%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음악듣기가 21.2%로 나타나 많은 남녀대학생이 태교하면, 음악을 떠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로는 태교의 목적(29.1%)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똑똑한 아이를 위하여 11%, 바른 아이를 위하여 10.3%, 건강한 아이를 위하여 3.1%, 불필요하다 2.7%, 예쁜 아이를 위하여 2.1%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태교의 이미지는 태교의 주제(9.6%)에 관한 부분으로, 부부 6.2%, 여성 3.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태교의 시기에 대해서는 총 7.5%로 임신 후부터 7.2%, 임신 전부터 0.3%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오늘날의 대학생들이 주로 가지는 태교에 대한 이미지는, 임신한 이후에 똑똑하고 바른 아이를 낳기 위해 음악을 듣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늘날 태교에 관한 인식이 전통사회에 비해 부정적이고 지나치게 방법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태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주요어: 예비부모, 태교, 이미지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부산대학교 부설 어린이집 교사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태교는 ‘임신 전, 임신 중, 임부와 주위사람들이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 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행위와 모든 노력’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신미아, 최정현, 2010), 과거뿐 아니라 현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행위이다.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부모가 행하는 교육적 노력이라는 태교의 근본정신은 과거나 현재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 태교는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쌓여져 내려온 참된 휴머니즘의 학문이며, 가장 대중적인 문화이며 동시에 역사적 경험으로 쌓아온 실용과학(박문일, 2007)으로, 시대와 공간을 떠나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태교와 관련하여 임태택(2008)은 잉태·태교·출산·육아는 유아교육의 기초이자 뿌리라고 하며, 유아교육의 근본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잉태·태교·출산·육아의 본질적 의미와 실천적 지혜를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버지의 낳음과 어미의 기름과 스승의 가르침이 모두 한 가지이다. 의술에 뛰어난 자는 아직 병 들지 아니하였을 때 다스리고, 잘 가르치는 자는 태어나기 전에 가르친다. 그러므로 스승의 십 년 가르침이 어미가 잉태하여 열달 기름만 같지 못하고, 어미의 열 달 기름이 아버지의 하루 낳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는 사주당 이씨가 지은 태교의 대표적 문헌인 『태교신기』의 제1장 2절에 제시된 내용이다. 사주당 이씨는 이미 형체와 기질이 형성된 후의 교육은 형체와 기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교육에 비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장정호, 2005 재인용).

전통사회에서는 자녀를 기다리면서 부모됨을 준비하고 기원하며 정성을 들였다. 또한 인간의 탄생은 ‘삼신할매의 점지’로 낳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생명의 탄생은 전적으로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과의 관계 속에서 신으로부터 ‘점지 받는 것’으로 여겨졌다. 즉, 생명의 탄생은 인간의 힘이나 여성의 힘뿐만 아니라 우주와 자연과 인간이 결합할 때, 가능한 것이다. 조상들은 삼신이 아기의 포태·출산뿐만 아니라 15세 정도까지의 양육을 도맡아준다고 믿었다(유안진, 1990). 이렇듯이 예전에 생명탄생은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가, 천지자연이 함께 하는 것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신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가 맺어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임신 중 가장 많은 횡수의 초음파 촬영을 하고(헤럴드 경제, 2010. 3. 29), 제왕절개율이 가장 높으며, 모유 수유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점은 산업화 즉 기계적·과학적 세계관 또는 세계를 생명 없는 객관적 사물로 보는 관점과 관련 있다. 이는 임신과 출산이 이제 객관화, 타자화, 물질화되어가고 있음을 드러내준다(조순영, 2008b). 조순영

(2008b)은 현대 태교의 특징을 상업화, 획일화, 기술화로 명명하면서 오늘날 태교교실과 태교상품들은 태교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아닌 산모위주, 관리중심, 일회적 성격, 기능적 편향, 태교의 시작 시기 등에서 중요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건강하고 잘 생기고 머리 좋은 아기 만드는 법’, ‘태교는 과학이다’ 등의 문구로 태교프로그램과 태교용품을 소개하여 임산부에게 소비를 자극하는 광고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급기야 2008년 현대사회 육아용품 시장에서는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임신 때부터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회현상을 일컫는 ‘웰본(well-born)’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에 이른다(권선임, 2010). 또한 임신이라는 상황이 자신에게 닥쳐야만 태교의 필요성을 느끼는 현대인의 경향이 지적되고 있는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현대인의 경향은 태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태교의 인식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기혼여성 및 부부를 중심으로 한 인식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미향, 1983; 구본권, 1999; 김미옥, 2003; 김순이, 류철선, 1997; 김은주, 서영희, 한미라, 조희숙, 임재택, 2006; 문희수, 최의순, 2002; 배상미, 2007; 신용분, 고효정, 2000; 안기주, 2000; 연정은, 2001; 조연희, 1993; 최경옥, 1974; 최연순, 김현옥, 1995; 홍혜경, 1980; 황옥자, 1996). 결혼 전 임신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대학생이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신미아, 최정현, 2010; 이연희, 2010; 이창희, 1990; 정현, 1999)가 있긴 하나, 기혼여성 및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서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는 태교를 ‘임신 후부터’ 준비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오늘날의 태교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육학에서 태교가 충분히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태교에 대한 교육학적 접근이 부족한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한국교육학 또는 유아교육학의 주요한 흐름이 실증주의 학문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현실과 관련되어 있다(조순영, 2008b).

따라서 본 연구는 ‘과연 오늘날 예비부모들인 남녀대학생들은 ‘태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학생과 미혼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신미아, 최정현, 2010; 이연희, 2010; 이창희, 1990; 정현, 1999)와는 다르게 폐쇄형 질문보다 개방적인 질문으로 그들이 떠올리는 이미지에 주목한 이유는, 기존의 태교 관련 연구들이 주로 미리 만들어진 설문지에 답하는 정도로 인식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태교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사람마다 매우 주관적인 이미지를 갖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미지(Image)란 개인이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억, 호감, 평가, 태도, 감정, 생각 등 머릿속에 존재하는 심상의 종합이다(이은하, 고은경, 2008). 이미지는 정신적 표상, 시각적 취향, 경험적 의미, 맥락과 역사, 잠재력의 표현을 포함하는 은유적인 함축성을 갖는다(Ryan & Ochsner,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미지는 대상의 부분적

또는 총체적인 측면에 대한 은유적 함축성을 가진 개인의 주관적인 심상을 표현하거나 기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미지는 특정 대상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으로, 남녀대학생이 갖는 태교에 대한 이미지는 결국, 태교에 대한 그들의 기억, 호감, 평가, 태도, 감정, 생각, 신념, 지식 등의 총체이다.

예비부모로서 남녀대학생이 태교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는 생명관, 인간관, 교육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임신·출산·육아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강한 사회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의 대학생은 미래의 부모이며, 현대의 대학생들에 의해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잉태된다(이연희, 2010). 결혼 및 임신을 준비하는 사전단계이면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할 미래의 부모인 대학생에게 있어 태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과정이다(신미아, 최정현, 2010).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오늘날 남녀대학생의 태교관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정 대상, 주제에 대한 생각과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연구방법은 미리 작성된 폐쇄형 설문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일차적으로 연구자나 전문가의 공인된 관점에 한정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남녀대학생이 가지는 개별적이고 다양한 주관적 견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부모로서 남녀대학생이 태교에 관해 떠올리는 구체적이고 개방적인 이미지를 파악하고, 이를 내용분석을 통해 조사함으로써 태교에 대한 이미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내용분석을 통해 남녀대학생들의 태교에 대한 이미지를 심층적으로 알아봄으로써 기초 조사 연구로 드러나지 않았던 태교에 대한 예비부모로서의 남녀대학생의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젊은 세대가 인식하고 있는 태교에 대한 인식과 그 한계점을 파악하고 예비부모로서 부모됨을 준비하고, 바람직한 태교 환경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근대 산업 문명에서 축소된 태교의 그 본래적 의미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 1. 태교에 대한 예비부모의 이미지 내용은 어떠한가?

문제 2. 태교에 대한 예비부모의 이미지 내용별 특성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태교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내용분석하고 이를 통계처리하였으며, 개별면담 결과를 질적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

1) 설문대상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2009년 11월에서 12월 초까지 부산 지역 P대학교 남녀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태교에 대한 남녀대학생의 이미지'를 조사하고자 한다는 연구목적에 밝히고 희망자중 계열별, 남녀별로 선착순으로 임의 표집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총 294부를 회수하였다. 회수한 294부(회수율 98%)에서 대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하고 292부를 본 설문의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남녀대학생의 성별, 나이, 전공계열별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구분	내용	명(%)
성별	남	144(49.3%)
	여	148(50.7%)
나이	23세 이하	153(52.4%)
	24세-27세 이하	118(40.4%)
	28세 이상	21(7.2%)
전공계열	인문계열	150(51.4%)
	자연계열	142(48.6%)
전체		292(100%)

2) 면담대상

연구자는 태교에 대한 예비부모로서의 대학생의 주관적인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자 292명에게 면담신청자를 받았으며, 그 중 19명이 설문지에 추가 심층면담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19명의 희망자 명단을 검토하여 성별, 나이, 전공계열과 같은 면담신청자의 일반적 배경 및 작성한 설문지 내용을 바탕으로 남자 5명, 여자 5명으로 총 10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개별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면담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대상	성별	나이	전공계열	대상	성별	나이	전공계열
1	여	23	인문	6	남	20	자연
2	여	22	자연	7	남	27	자연
3	여	21	인문	8	남	26	인문

4	여	25	인문	9	남	25	자연
5	여	22	자연	10	남	24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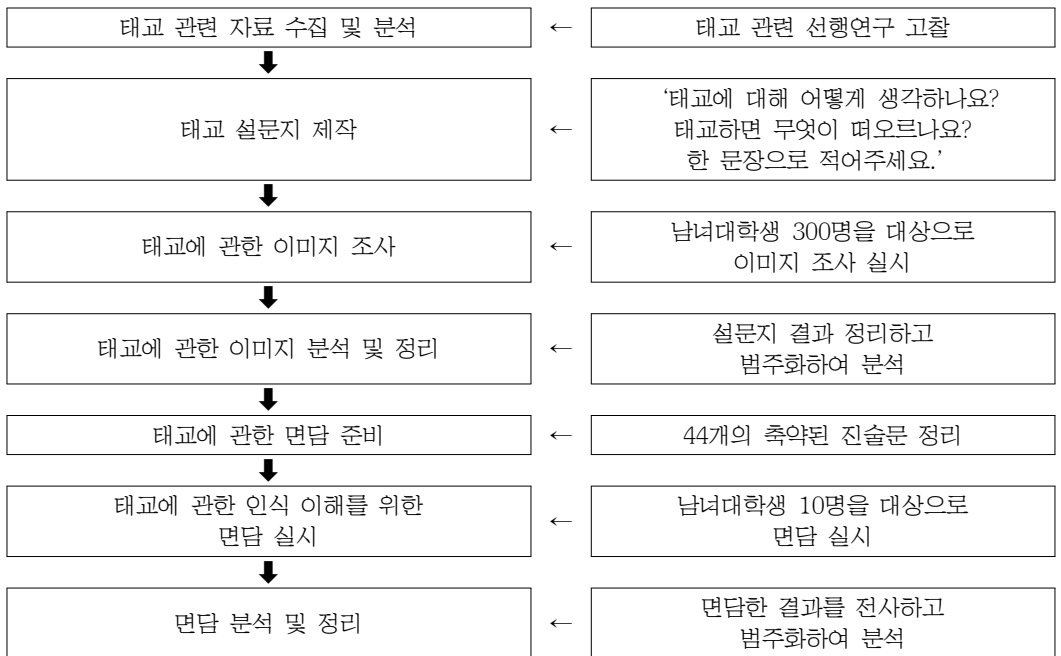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태교에 대한 예비부모의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계열별, 성별로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남녀대학생에게 ‘태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태교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한 문장으로 적어주세요.’라고 적힌 A4지를 배부하였다. 연구자에 의해 미리 작성된 폐쇄형 설문지가 아니라 한 문장으로 표현하도록 한 것은 앞서 연구목적에서 밝혔듯이 ‘태교’하면 바로 떠올리는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292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총 292개의 문장이 만들어졌다. 292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연구자 외 유아교육 전공교수 1인이 태교에 대한 이미지를 유형화하고 범주화하여 총 44개의 진술문을 작성하였다. 44개로 축약된 진술문은 표 3과 같다.

<표 3> 진술문의 내용

1 태교는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다	22 임신부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생각한다
2 태교는 건강한 2세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23 태교는 좋은 것을 함께 아이와 공유하는 것이다
3 태교는 귀찮다	24 태교는 아이를 위한 마음가짐이다
4 태교는 지루하다	25 태교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5 태교는 올바른 자녀 양육의 첫걸음이다	26 태교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6 우리 아이만은 다르게 키우려고 애쓰는 극성스러운 부모들이 생각한다	27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이 생각한다
7 태동이 생각한다	28 태교는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다
8 아내의 배에 귀를 가져다 대는 남편이 모습일 생각한다	29 뱃 속 아기와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생각한다
9 태교는 아이와 내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30 태교는 좋은 생각, 건전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다
10 태교는 태아와 부모의 행복한 시간이다	31 태교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10개월간의 놀이이다
11 포근한 느낌이 든다	32 태교는 아이와 부모의 교감이다
12 태교는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33 태교는 음악이 최고이다
13 태교는 엄마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34 태교는 어머니의 사랑이다
14 태교는 아이의 정서 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35 태교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15 태교는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다	36 금주와 금연이 생각한다
16 태교는 답답한 것이다	37 태교 체조가 생각한다
17 태교는 언행을 신경 쓰고, 조심하는 것이다	38 태교는 뱃속에서의 선행학습이다
18 태교는 차분한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다	39 태교는 인격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19 태교에 따라 아기의 뇌(머리)가 발달된다	40 태교는 부모의 기대감의 표현이다
20 태교는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위한 부모의 정성과 노력이다	41 태교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21 태교는 임신부와 태아의 심신 안정을 위한 것이다	42 태교는 부모됨의 준비이다
	43 태교는 심성이 고운 아이로 교육하는 것이다
	44 태교는 똑똑한 아기를 키우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설문지에서 축약된 44가지의 문장을 중심으로 개방적 질문과 반구조화된 질문(semi-structured interview)을 혼합하여 면담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각 연구대상에 따라 약 60~90분 정도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주로 면담 대상자와 레포 형성을 위한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에는 본격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적절한 맥락이나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되는 지식을 얻어내는 작업으로, 자료와 지식이 면접과정에서 대화형식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창출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 면담은 단순히 지식을 발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식을 구축하고 재구축하는 과정으로 피면담자와의 상호작용 자체가 중요한 자료출처가 되므로 추가심층면담에 의의를 두었다(Mason, 2002; Kvale, 1996). 질문은 태교를 누가, 언제, 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태교에 관해 왜 그러한 인식을 하는지, 진술문 중 가장 자신의 의견과 비슷한 것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것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절차를 간략히 도표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절차

3. 자료 수집 및 분석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여러 번 읽어가면서 코딩 체계를 잡아 코딩해 나가면서 범주를 잡고 범주에 맞게 분석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수집 후 1차 분석단계로 설문지에서 추출된 292개의 문장을 기록하고, 반복하여 읽었다. 둘

제, 수집과정에서 모아진 292개의 문장들을 세밀하게 읽어나가면서 반복되는 주요 주제를 추출하고 주제별 단위로 나누어 자료를 분류시켜나갔다. 셋째, 반복되는 주요 문장과 의미 있는 단어들을 연결하여 범주화하기 시작하여 유목화하였다. 넷째, 유목화된 영역에 대한 정교화단계를 거쳤다. 다섯째, 각 주제를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면담자료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자료해석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의 설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하고 질적 연구에 익숙하며, 연구의 초기단계부터 개입한 유아교육전문가 3인에 의한 연구감사(research audit)를 실시하였다. 연구감사는 Lincoln과 Guba가 제시한 것이다. 주제별 분류와 범주의 생성 및 재조정 단계 거처서 최종 생성된 범주는 주제, 시기, 내용-방법, 목적의 4가지 범주, 18가지 하위범주로 정리되었다.

모든 자료의 통계적 처리는 SPSS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문제 1의 검증을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연구문제 2는 구체적인 이미지 범주별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면담 내용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복응답을 포함하지 않았다.

Ⅲ. 결과 및 해석

우선, '태교'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이미지 범주별로 나누어 이미지 내용별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태교에 대한 남녀대학생의 이미지 내용 분석

태교에 대한 남녀대학생의 이미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주제, 시기, 목적, 내용-방법 특성 측면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태교에 대한 주제는 여성과 부부로, 시기는 임신 전부터와 임신 후부터로, 목적은 필요하다와 불필요하다로, 내용-방법은 권장사항과 금기사항으로 분류되었다.

태교에 대한 남녀대학생의 이미지를 총 이미지 내용빈도에 대한 각 이미지 내용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내용을 빈도 분석한 결과, 주제(9.6%)와 시기(7.5%)의 측면보다는 내용과 방법(53.8%), 목적(29.1%)의 측면을 더욱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위범주별로 살펴보면, '음악듣기'가 21.2%로 가장 높은 이미지로 다음은 똑똑한 아이를 위하여 11%, 바른 아이를 위하여 10.3%, 공유하며 즐기기 10.3%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이미지로는 임신 전부터 0.3%, 부모됨 준비하기 1.4%, 예쁜 아이를 위하여 2.1%, 삼가하기 2.4%, 조심하기 2.4%, 불필요하다 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태교에 대한 남녀대학생의 이미지 내용

N=292

상위범주	하위범주	N(%) (남)	N(%) (여)	합계	
주제:누가	여성	6 (2.1)	4 (1.4)	10 (3.4)	28 (9.6)
	부부(아빠의 역할)	6 (2.1)	12 (4.1)	18 (6.2)	
시기:언제	임신 전부터	·	1 (0.3)	1 (0.3)	22 (7.5)
	임신 후부터	13 (4.5)	8 (2.7)	21 (7.2)	
목적: 왜	뚜렷한 아이를 위하여	16 (5.5)	16 (5.5)	32 (11.0)	85 (29.1)
	예쁜 아이를 위하여	3 (1.0)	3 (1.0)	6 (2.1)	
	건강한 아이를 위하여	6 (2.1)	3 (1.0)	9 (3.1)	
	바른 아이를 위하여	16 (5.5)	14 (4.8)	30 (10.3)	
	불필요하다	7 (2.4)	1 (0.3)	8 (2.7)	
내용·방법: 무엇을, 어떻게	부모됨 준비하기	2 (0.7)	2 (0.7)	4 (1.4)	157 (53.8)
	노력하기	6 (2.1)	6 (2.1)	12 (4.1)	
	편안하게 하기	5 (1.7)	7 (2.4)	12 (4.1)	
	권장사항 (할 것)	11 (3.8)	19 (6.5)	30 (10.3)	
	공유하며 즐기기	34 (11.6)	28 (9.6)	62 (21.2)	
	음악듣기	4 (1.4)	6 (2.1)	10 (3.4)	
	대화하기	4 (1.4)	9 (3.1)	13 (4.5)	
	외부 교육프로그램 · 용품 활용하기	4 (1.4)	3 (1.0)	7 (2.4)	
	금기사항 (피할 것)	1 (0.3)	6 (2.1)	7 (2.4)	
	조심하기	·	·	·	

2. 태교에 대한 남녀대학생의 이미지 내용별 특성

1) 주제: '누가 하는가?'에 대한 이미지

남녀대학생이 인식하는 태교는 '누가 하는가?'에 대한 이미지의 내용에 대해 각각 빈도와 백분

을을 구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태교에 대한 주체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내용	N(%)		
		남	여	합
여성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노력, 엄마와의 소통	6 (21.4)	4 (14.3)	10 (35.7)
부부	부부가 함께하는, 배우자와 함께, 아빠의 역할, 부모와 태아, 아내의 배를 쓰다듬는 남편, 아내의 배에 귀를 가져다 대는 남편	6 (21.4)	12 (42.9)	18 (64.3)
전체		12 (42.9)	16 (57.1)	28 (100)

남녀대학생이 인식하는 태교는 ‘누가 하는가’에 대한 이미지는 여성과 부부로 집약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면담자료에서 잘 나타난다.

태교는 좋은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 있으니 어머니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어머니의 사랑, 희생의 출발점이 아닐까. 새생명을 받아들이는 고귀한 과정의 처음으로 아름다운 일이지요. 10개월동안 어머니의 사랑 없이는 태교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사랑 없이 태교를 설명하기 힘들죠. 어머니 뱃속에서 듣는 태교는 어머니의 사랑이죠. 태교는 어떠한 활동을 하든 부모는 아이를 위한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학생 7).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 배에 다가가 귀대고 배 만져보고, 아내가 사달라는 거 바로 바로 사주고, 힘들다고 투정부리면 받아주기도 하고, 아내를 위해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요.(학생 3).

태교를 잘한다고 똑똑한 아이를 키우게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태교에는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감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동안 소중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태교는 엄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아빠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아빠가 임신부를 도와야 임신부도 즐겁고 아이도 즐겁게 되는 거죠. 아빠의 사랑과 관심이 중요하다고 봐요. 아이도 뱃속에서부터 엄마, 아빠 두 분의 사랑을 모두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내 아이는 예쁘고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웃음)(학생 2).

표 5에 의하면, 남녀대학생이 인식하는 ‘태교는 누가 하는가’에 대한 이미지는 여성35.7%, 부부 64.3%로 나타났다. ‘태교는 누가 하는가’에 대한 이미지에 관해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여성 21.4%, 부부 21.4%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여성 14.3%, 부부 42.9%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녀대학생은 태교에 대해서 부부가 중심이 된다는 이미지와 여성이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태교에서 남편의 역할과 지지를 중요시하며 부부가 함께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 시기: '언제 하는가?'에 대한 이미지

남녀대학생이 인식하는 태교는 '언제 하는가?'에 대한 이미지의 내용에 대해 각각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태교에 대한 시기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내용	N(%)		
		남	여	합
임신 전부터	임태 이전부터	.	1 (4.5)	1 (4.5)
임신 후부터	10개월간의 놀이, 태어날 아기에 대한 기대, 뱃 속에서의 선행학습, 태중교육, 뱃 속에서의 교육, 태동, 태아를 위한 정성과 노력, 태아를 위한 교육, 출산을 위한 준비	13 (59.1)	8 (36.4)	21 (95.5)
전체		13 (59.1)	9 (40.9)	22 (100)

남녀대학생이 인식하는 '태교는 언제 하는가?'에 대한 이미지는 임신 전부터, 임신 후부터로 집약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면담자료에서 잘 드러난다.

태교는 임신을 알고 난 다음부터 부부가 태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신 후에 먹을 것도 가려서 먹고, 화도 많이 안내려고 노력하고, 아기에게 좋다는 클래식 음악도 듣고 뭐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학생 8).

임신한지도 모르고 2-3개월을 지낸 사람 이야기를 들었었다. 임신한 지 알았으면 몸을 조심했을 텐데 임신한지 모르고 술도 먹고 약도 먹고, 오빠(남편)랑도 많이 싸웠다면서(학생 1).

표 6에 의하면, 남녀대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태교는 언제 하는가?'에 대한 이미지는 임신 후부터 95.5%, 임신 전부터 4.5%로 나타났다. '태교는 언제 하는가?'에 대한 이미지에 관해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태교는 임신 전부터라고 인식한 남학생은 없었으며, 임신 후부터가 59.1%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임신 전부터가 4.5%, 임신 후부터가 36.4%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녀대학생은

태교에 대해서 대부분 임신 후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 목적: '왜 하는가?'에 대한 이미지

남녀대학생이 인식하는 태교는 '왜 하는가?'에 대한 이미지의 내용에 대해 각각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태교에 대한 목적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내용	N(%)		
		남	녀	합
필요하다	똑똑한 아이를 위하여	16 (18.8)	16 (18.8)	32 (37.6)
	예쁜 아이를 위하여	3 (3.5)	3 (3.5)	6 (7.1)
	건강한 아이를 위하여	6 (7.1)	3 (3.5)	9 (10.6)
	바른 아이를 위하여	16 (18.8)	14 (16.5)	30 (35.3)
불필요하다	효과 없다, 스트레스, 미신, 태교보다는 가정교육, 효과 있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지루해서 하기 싫다	7 (8.2)	1 (1.2)	8 (9.4)
전체		48 (56.5)	37 (43.5)	85 (100)

남녀대학생이 인식하는 태교는 '왜 하는가?'에 대한 이미지의 내용은 크게 필요하다와 불필요하다로 나누어지며, 필요하다의 하위범주로는 똑똑한 아이를 위하여, 예쁜 아이를 위하여, 건강한 아이를 위하여, 바른 아이를 위하여로 집약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면담자료에서 잘 드러난다.

태교는 엄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많은 영향을 미치죠. 태교는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아이로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성이 좋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또 좋은 것만 느끼고 보도록 노력하는 것인 거 같아요. 서로의 심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교하는 이유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기에 부모가 기대를 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전 무엇보다 태교의 목적은 심성을 다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학생 3).

태아 때부터 1%로 만들기 위한 부모들의 노력이 바로 태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똑하고 영특한 아이를 바라면서. 한마디로 부모의 기대감이 반영된 거. 언니를 따라 출산육아박람회 같은 거 간 적이 있었는데 신기한 것도 많고 좋아 보이는 것도 많았어요. 근데 저게 과연 아이들한테 진짜 좋을까 싶었죠. 특별한 아이로 키우기 위한 부모들의 기대감과 딱 맞아떨어진 여러 상품들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출산육아박람회) 행사하면 사람이 대박 많이 오는 거 같아요. 가끔은 우리 언니도 지나치다 싶어요. 태교한다고 벌써 영어 동화책 사가지고 책장에 꼭 사두고, 근데 잘 안 읽는 것 같아요(웃음)(학생 1).

저는 썩뜻맞은지 몰라도 강남 엄마들이 떠올라요. (태교는) 품질향상을 위한 부모의 노력이죠. 우수한 인적자본을 위한 투자. 왜 부모들은 아기 머리가 좋아진다면 이것 저것 다 하잖아요. 그런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인가 싶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마음 편하게, 즐기면서 좋은 것 많이 보고 그게 더 애한테 좋을 것 같은데...(학생 10).

표 7에 의하면, 태교의 목적에 대하여 남녀대학생들은 똑똑한 아이를 위하여 37.6%, 바른 아이를 위하여 35.3%, 건강한 아이를 위하여 10.6%, 예쁜 아이를 위하여 7.1% 순으로 나타나 똑똑한 아이와 바른 아이를 위하여 태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측면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반면, 태교에 대해 불필요하다거나 불신하는 의견이 9.4%로 나타났는데 여학생(1.2%)에 비하여 남학생(8.2%)이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태교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남녀대학생의 회의적인 시각은 다음 면담자료에서 잘 나타나 있다.

태교가 크게 뇌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태교는 똑똑한 아이보다는 건강한 아이를 바라는 마음이다. 태교를 하면 부모들의 마음은 편해질 것 같긴 해요(학생 9).

(태교는) 아기가 잘 자라나길 바라는 부모의 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지만, 태교를 한다고 해서 심성이 고와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설픈 조기교육으로 아이에게 더 스트레스가 될 것 같은데요(학생 6).

4) 내용·방법: '무엇을·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미지

남녀대학생이 인식하는 태교는 '무엇을·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미지의 내용에 대해 각각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표 8에 제시하였다. '무엇을·어떻게 하는가'는 그 특성상 구분하기 모호하여 함께 묶어서 분석하였다.

<표 8> 태교에 대한 내용·방법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내용	N(%)				
		남	여	합		
권장사항 (할 것)	부모됨 준비하기	부모됨 준비하기, 어떤 부모가 될 것인지, 부모로서 어떠한가하는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2 (1.3)	2 (1.3)	4 (2.5)	
	노력하기	책 많이 보기, 독서하기, 아기를 위한 노력, 운동하기, 태교체조, 요가, 명상	6 (3.8)	6 (3.8)	12 (7.6)	
	편안하게 하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엄마가 스트레스 받지 않기, 태아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기, 태아를 편안하게 해주기, 안정 취하기, 편안하게 쉬기, 편안한 마음	5 (3.2)	7 (4.5)	12 (7.6)	
	공유하며 즐기기	즐거운 것, 즐거운 것 하기, 좋은 생각, 건전한 생각, 좋은 음식,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시간, 함께하기, 공유하기, 교감하기	11 (7.0)	19 (12.1)	30 (19.1)	
	음악듣기	좋은 음악, 좋은 소리, 클래식 음악,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 부드러운 음악, 잔잔한 음악	34 (21.7)	28 (17.8)	62 (39.5)	
	대화하기	대화하기, 소통하기, 태담	4 (2.5)	6 (3.8)	10 (6.4)	
	외부교육 프로그램· 용품 활용하기	다양한 프로그램, 태교용품, 산부인과, 출산교실, 문화센터	4 (2.5)	9 (5.7)	13 (8.3)	
	금기사항 (피할 것)	삼가하기	금주, 금연, 언행 조심, 차분함, 금기음식, 화내지 않기, 금기사항, 살생금지	4 (2.5)	3 (1.9)	7 (4.5)
		조심하기	몸조심, 마음가짐 조심, 신경, 신중	1 (0.6)	6 (3.8)	7 (4.5)
	전체		71 (45.2)	86 (54.8)	157 (100)	

남녀대학생이 인식하는 태교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권장사항과 금기사항으로 집약될 수 있으며, 권장사항의 하위범주로는 부모됨 준비하기, 노력하기, 편안하게 하기, 공유하며 즐기기, 음악듣기, 대화하기, 외부 교육프로그램·용품 활용하기로 분류되며, 이는 다음의 면담자료에서 잘 드러난다.

태교는 임신을 알고 난 다음부터 부부가 태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임신 후에 먹을 것도 가려서 먹고, 화도 많이 안내려고 노력하고, 아기에게 좋다는 클래식 음악도 듣고 뭐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학생 8).

똑똑한 아이만을 원하는 부모는 빵점 부모라고 생각해요. 아이에게 좋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랑을 전하고 사랑으로 충만

한 아이가 태어나는게 아닐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고 하던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 같아요. 머리 좋은 거, 능력, 외모 등. 물론 좋으면 더 좋겠지만...(학생 10).

내 아이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간단한 일마저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아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 아이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을 부모로서 준비하는 단계인데, 이 과정이 귀찮다면 말 다했죠. 태교에서 편안함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듯 해요. 아기와 엄마가 편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지루하다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피해야겠죠. 조용히 편안하게 있는 임신부의 모습이 그려져요 (학생 8).

표 8에 의하면, 태교 내용·방법의 권장사항에 관하여 남녀대학생들은 음악듣기 39.5%, 공유하며 즐기기 19.1%, 외부 교육프로그램·용품 활용하기 8.3%, 편안하게 하기 7.6%, 노력하기 7.6%, 대화하기 6.4%, 부모됨 준비하기 2.5%의 순으로 나타나 음악듣기(39.5%)가 명확하게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남녀대학생들은 태교하면 음악듣기(21.2%)를 가장 많이 떠올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태교 내용·방법의 금기사항에 대하여 남녀대학생들은 삼가기 2.4%, 조심하기 2.4%로 나타났다. 남녀대학생들은 태교의 내용·방법에 대하여 조심하고, 신중하고, 삼가야 할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즐기고 편안하게 행하는 권장사항을 위주로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면담에서 드러난 ‘권장사항’에 대한 남녀대학생의 시각은 다음과 같다.

태교는 엄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많은 영향을 미치죠. 태교는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아이로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성이 좋은 아이로 키우는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마음을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면서 임신부의 생활을 즐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요.(학생 3).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태교에 대해 예비부모로서 남녀대학생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에 대하여 질적 연구방법인 내용분석을 통해 조사함으로써, 태교에 대한 인식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태교에 관한 예비부모들의 이미지는 네 가지 이미지 요소, 즉 주체, 시기, 목적, 내용·방법의 측면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 구성 요소는 내용·방법이 53.8%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음악듣기가 21.2%로 나타나 많은 남녀대학생이 태교하면, 음악을 떠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녀대학생이 인식하는 태교의 주체는 총 9.6%로 부부 6.2%, 여성 3.4%로 나타났으며, 시기는 총 7.5%로 임신 후부터 7.2%, 임신 전부터 0.3%로 나타났으며, 목적은 총 29.1%로 똑똑한 아이를 위하여 11%, 바른 아이를 위하여 10.3%, 건강하

아이를 위하여 3.1%, 불필요하다 2.7%, 예쁜 아이를 위하여 2.1% 순으로 나타났다. 내용-방법은 총 53.8%로 음악듣기 21.2%, 공유하며 즐기기 10.3%, 외부 교육프로그램-용품 활용하기 4.5%, 노력하기 4.1%, 편안하게 하기 4.1%, 대화하기 3.4%, 부모됨 준비하기 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시사점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남녀대학생은 여성과 부부를 중심으로 태교가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남녀대학생들은 이미 태교는 부부가 함께 하는 일이라는 것과 남편의 지지가 중요함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현시대의 사회, 문화적 가치와 대중매체나 사회 교육프로그램의 영향(위혜숙, 2004)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더욱 남편의 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태교하면 함께 태교를 실천하는 남편의 모습을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중매체 속의 모습에 대한 이미지와 더불어 임신, 출산이라는 사건이 자신에게 당장 닥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사고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또한 남녀대학생은 태교는 대부분 부부가 중심이 되어 행해지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태교에 있어서 가정의 존재가 축소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현대인들이 주로 핵가족 중심으로 생활을 하여, 자연스럽게 가정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데, 태교를 함에 있어서도 가족공동체의 붕괴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온가족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가치관 형성을 위해 대중매체나 교육을 통해 가족의 역할과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교육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건강한 가족의 출산-육아문화와 관련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전통 태교에서는 태교에 대해 천지자연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뚜렷한 반면, 오늘날 남녀대학생들은 태교에 대하여 천지자연이 함께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한 오늘날의 교육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 전통 태교에는 인간의 생명이 그 탄생 과정부터 여러 관계의 조화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인간을 성장시키는 교육 또한 중층적인 관계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사유가 전제되었다(조순영, 2008b). 조순영(2008a)은 인간의 생명을 남녀의 결합과 육체적 건강과 같은 가시적인 영역에 한정시키는 접근은 생명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로막으며, 수태란 인간이라는 주체와 천지자연이라는 객체가 하나됨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남녀대학생들에게 가시적인 영역에 한정된 좁은 의미의 태교가 아니라, 보다 넓고 관계론적인 태교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모성, 부성, 가족, 이웃이라는 씨실과 실타, 자연, 우주라는 날실이 교차하며 어울려 창출한 한국 전통 태교라는 교육 문화를 접할 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자녀와 부모를 위한 노력이라는 공통적인 목적 아래 태교는 이후의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해서도 동일선상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생명의 신비를 느끼며 겸손히 손을 모아 빌었던 우리 선조들의 수태, 태교와 출산을 포함한 육아문화를 재조명함으로써 현대 사회에 적용 가능한 전통 육아의 지혜를 체계화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보다 건강한 육아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녀대학생은 태교는 대부분 임신 후부터 이루어지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즉, 남녀대학생은 태교는 잉태된 순간부터 출산할 때까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임신이라는 상황이 자신에게 닥쳐야만 태교의 필요성을 느끼는 남녀대학생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영철, 2007; 신용분, 고효정, 2000; 이연희, 2010; 정현, 1999)와도 일치하며, 태교는 잉태되기 전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으로 보았던 전통 태교관과 대비된다고 볼 수 있다.

이흥우(1993)는 태교가 교육적 의도에서 실천되어 온 상황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차원으로 제시하며, 시간의 차원에서 태교의 실천은 엄밀한 의미에서 열 달이라는 회임기간을 벗어난다고 말하였다. 전통적 태교의 관점에서 태교란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즉 부모가 되기 전부터 시작되는 인생 관리의 의미가 크지만, 현대적 태교는 잉태된 후의 산전 관리의 측면이 강하다. 과거의 전통적인 안목으로서 백년을 준비하는 교육으로서의 태교와 현대적인 안목으로서 눈앞에 닥쳐진 상황으로서의 태교에 대해 비교해 볼 때, 눈앞에 닥쳐진 상황에 대처하기 급급한 태교, 임신 후에 시작되는 태교가 아니라 더 넓은 안목으로 준비하는 교육으로서 태교를 바라보는 남녀대학생의 시야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되어진다. 결혼 이전부터 태교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아가 청소년기에 자아를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태교에 관한 학교 교육이 필요하다(신미아, 최정현, 2010; 이선아, 2001; 이창희, 1990; 정정순, 박준호, 2005; 정현, 1999).

셋째, 남녀대학생들은 태교에 대해 뱃속에서의 10달 역시 '똑똑한 아이를 위하여'라는 측면과 '바른 아이를 위하여'라는 두 가지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지금 여기의 교육이 아닌 결국 미래를 위해 현재가 없는 오늘날 교육의 현실이 반영된 동시에 여전히 아이의 인성 및 성격형성에 태교의 큰 가치를 두는 측면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임신부 중에는 공부를 잘 하는 아이를 가질 목적으로 태교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남녀대학생 역시 똑똑한 아이를 위하여 태교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의 아동관과 교육관을 여실히 드러내준다. 유아의 가시적인 발달에 사로잡혀 정작 인간이 이르러야 할 이상적이고 정신적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식적인 반성과 자각이 요구된다. Sandel(2010)은 오늘날 야망에 찬 부모들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사랑 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자녀들이 모든 면에서 성취하도록 촉구하거나 요구함으로써 완벽을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경계해야함을 지적하며, 자녀를 선물로 여기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부모가 디자인해도 되는 대상이나 의지의 산물, 부모의 야망을 해결하는 도구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똑똑한 아이를 위하기보다는 아이의 훌륭한 인성, 성품을 위해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다는 것은 희망적이다. 하지만 남녀대학생에게 태교는 당장 처한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상점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

예전에는 부모됨의 준비, 부모의 수행·수련과정으로 인식한다든지, 부모자신의 성숙과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태교를 통하여 산모와 그의 가족들은 좀 더 근원적인 인간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일상에서 느끼기 힘든 삶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우리는 태교가 좀 더 나은 자식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대변하는 ‘소유론적 행위’가 아니라, 태아와 하나 되는 경험을 통하여 자아와 타자가 별개가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게 하는 ‘존재론적 교육’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조순영, 2008b). 태교는 단지 태아를 위한 교육이라는 의미에 한정되지 않고, 태교를 실천하는 성인들을 위한 교육, 즉 산모와 가족과 사회의 성숙과 성장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태교에 대한 안목을 바탕으로 한 예비부모들의 태교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태교의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의문을 제시하는 의견도 드러났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예비부모로서 남녀대학생들에게 태교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태교에 관한 과학적 타당성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태교의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우려스럽다. 태교 교육 프로그램은 태교가 지니는 더욱 깊은 의미 즉, 태아와 임신부의 내적 교류, 산모의 정신적 성숙, 온가족의 지지와 생명에 대한 경외 등이 주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대학교 교육과정으로 과목을 개설하여 예비부모로서 남녀대학생이 부모됨을 준비하며, 태교 본연의 가치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넷째, 남녀대학생들은 태교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금기사항(4.79%)보다는 권장사항(48.97%)의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김영철(2007), 이연희(2010)과 정현(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남녀대학생들은 조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금기사항을 지키기 위해 절제하며 스트레스받기보다는 즐기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산모의 평안하고 맑은 마음의 상태는 건강한 몸으로 직결되며 건강한 몸과 마음은 수태를 위한 훌륭한 준비 작업으로 인식하였다. 우선적으로, 태교는 임부에게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좋아하지도 않는 클래식 음악을 태아에게 좋다는 이유만으로 듣는 것은 임부에게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태아에게도 좋을 리 없다(김영철, 2007; 이연희, 2010)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남녀대학생들은 임부가 태아와 함께 공유하며 즐길 수 있는 일이라면 태아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신주자(2005)의 현대 태교문화 연구에서 현대적인 태교의 방법 중 임신부의 행동 기준으로 ‘임산부의 즐거움’을 제시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녀대학생들은 태교에 대한 내용과 방법에서 공유하며 즐기기의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태교를 모자간의 감정적 교류와 정서적 유대를 위한 행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고, 현대 태교로 갈수록 태아와 산모간의 교류나 애착이 중요시된다는 김은주 외(2006)의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태교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남녀대학생들은 임신부의 안정된 마음, 편안한 마음과 즐거움이 주가 된다고 인식한 것이다. ‘삼가함’으로 태교행동이 요약되었던

예전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이다. 전통 태교에서는 말하고 먹고 입고 잠자고 보고 듣는 내용들을 인간의 성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일상생활을 가다듬고 단속하는 과정을 주요한 교육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체험과 행위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면 인간성, 심성 등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교육은 되기 어렵다(조순영, 2008b). 생명을 수태하고 아이를 기르는 행위가 남녀대학생들의 인식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아니라 단지 즐김과 편안함 추구의 치우친 방향으로 자리 잡히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녀대학생이 태교·출산교실, 산부인과, 문화센터 등 외부 교육프로그램·용품을 떠올리는 것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태교가 태교용품이나 의료중심의 교육프로그램, 다양한 태교·출산 교실에 의존하는 최근 경향을 드러내주며, 이는 오늘날 태교, 출산 등 육아전반이 하나의 소비행위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생명의 잉태와 출산과 관련된 것이 병원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일로 여겨져, 태교와 분만 과정에서 산모는 주체적인 역할보다 수동적인 환자의 역할로 전락하게 된다(박영숙, 이은희, 1997; 조순영, 2008b; Odent, 2005). 생명을 수태하고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이 남녀대학생들의 의식 속에 자신의 몸과 마음가짐을 돌보는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교용품이나 의료의 의존성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추후 연구를 통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태교 교육프로그램은 태교의 가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영역까지 함께 고려되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 태교에 관한 남녀대학생들은 네 가지 범주 중에서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내용-방법(53.8%)이었다. 이는 남녀대학생들이 태교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내용-방법 가운데 음악 듣기가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태교방법으로 음악 감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대학생들의 의식에 반영된 결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남녀대학생들이 태교 내용-방법의 측면에서 다양한 내용과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현대의 교육과정에서 태아기는 교육의 시기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비부모로서 남녀대학생들에게 태교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태교에 대한 관계론적, 존재론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대학 교육과정의 개편, 태교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예비부모로서 남녀대학생들에게 이론적, 실천적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태교가 하나의 교육으로 자리매김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교육 대상과 디지털 시대를 반영한 태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개발, 온라인, TV, 워크숍, 대학 교육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육아 전반에 관해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 유아교육, 보육계열 학과는 전공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에 태교를 포함시키기 위한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태교는 본연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미향(1983). 정상아, 정신박약아 父母의 胎教 實績에 關한 調查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본권(1999). 한국 어머니의 태몽과 태교: 일반아동 어머니와 장애아동 어머니의 비교. **인문과학논집**, 8, 215-235.
- 권선임(2010). 현대사회 육아용품사용에 관한 생태적 고찰.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옥(2003). 현대부모의 태교인식과 태교실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이, 류철선(1997). 임신부의 태교에 대한 태도유형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7(4), 411-422.
- 김영철(2007). 전통태교와 현대태교의 원리. **교육연구논총**, 27(3), 1-23. 충북대학교 교육개발연구소.
- 김은주, 서영희, 한미라, 조희숙, 임재택(2006). 태교의 의미와 실제에 대한 문화기술적 탐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1(5), 321-347.
- 문희수, 최의순(2002). 산모와 배우자의 태교인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4), 583-594.
- 박문일(2007). **태교는 과학이다**. 서울: 프리미엄북스.
- 박영숙, 이은희(1997). 재생산적 신체: 임신과 출산의 현실. **여성과 사회**, 8, 78-93.
- 배상미(2007). 임부의 태교무용에 대한 인식도 조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미아, 최정현(2010). 미혼 대학생의 성지식과 태교인식 조사. **한국생활과학회지**, 19(4), 613-624.
- 신용분, 고효정(2000). 임부의 태교인식과 태교실천에 관한 조사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6(1), 142-152.
- 안기주(2000). 출산여성의 태교실천정도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정희(2005). 태교신기의 태교사상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정은(2001). 임신부부간의 태교인식과 실천행위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위혜숙(2004). 육아 시초로서의 태교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199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연희(2010). 대학생의 태교 및 태교교육에 관한 인식 조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하, 고은경(2008). 예비유아교사의 교육실습 경험에 대한 이미지 내용 분석. **열린유아교**

육연구, 13(6), 145-177.

이창희(1990). 대학생의 태교에 관한 의식조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홍우 외(1993).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홍우(1990). 파이테라스테이아와 태교: 교육의 원초적 세력을 찾아서. **도덕교육연구**, 4(1), 98-116.

임재택(2008). **생태유아교육개론**. 과주: 양서원.

장정호(2005). 유학교육론의 관점에서 본 『태교신기(태교신기)』의 태교론, **대동문화연구**, 50, 475-502.

정정순, 박준호(2005). 태교미술에 대한 인식도 조사: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성인 미혼 남녀를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2), 377-403.

정현(1999). 성인 미혼 남녀의 태교에 대한 인식도 조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순영(2008a). 한국 전통 수태관의 교육생태학적 의미. **도덕교육연구**, 20(1), 111-139.

조순영(2008b). 한국 전통 태교의 교육생태학적 이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조연희(1993). 우리나라 임부들의 태교에 관한 인식 및 실천도 조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경옥(1974). 胎教에 關한 探索の一研究.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삼섭, 박찬국(2002). **역주 태교신기**. 서울: 정보사.

최연순, 김현옥(1995). 임신부부의 태교실태조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 153-173.

헤럴드 경제(2010. 3. 29). '태아 초음파검사' 한국 11회 선진국은 3회. <http://biz.heraldm.com>에서 2010년 8월 20일 인출.

홍혜경(1980). 한국여성의 태교인지도에 관한 조사연구. **아동학회지**, 1(1), 1-14.

황옥자(1996). 어머니의 태교의식 및 태도와 유아건강과의 관련성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1), 131-156.

Kvale, S.(1996). *Interviews: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Thousand Oaks, CA: Sage.

Mason, J.(2002). "Qualitative Interviews: Asking, Listening and Interpreting" in T. May (ed.) *Qualitative Research in Action*, London: Sage.

Mathison, S.(1988). Why triangulate?, *Educational Researcher*, 17, 13-17.

Ryan, S., & Ochsner, M. (1999). Traditional practices, new possibilities; Transforming dominant image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ustral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24(4), 14-19.

Sandel, M. j.(2010).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강명신 역). 서울: 동녘. (원전은 2007년 출판)

Odent, M. (2005). **농부와 산과의사**(김태언 역). 대구: 녹색평론사. (원전은 2002년 출판)

* 논문접수 2011년 8월 1일 / 1차 심사 2011년 9월 15일 / 게재승인 2011년 9월 17일

* 임소영(任姒映, Im, SoYoung):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 전공으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부산대학교 부설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 중이며, 주요논문 및 저서로는 '전래아기놀이의 영아교육적 함의', '생태그림책 100선' 등이 있다.

* E-mail : tiss83@hanmail.net

* 김은주(金銀柱, Kim, EunJu):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 전공 교육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논문 및 저서로는 '유아교육에서 돌봄과 살림에 대한 논의',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 '생태유아교육의 이해', '생태그림책 100선' 등이 있다.

* E-mail : eunjukim@pusan.ac.kr

Abstract

A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Responses to Images Related to Prenatal Education

Im, SoYoung*

Kim, EunJu**

In this study, the images viewed by preparents were divided into four components: identity, time, purpose, and content or method. Among these, the content or method component (53.8%) was the largest and within that, listening to music was the most significant (21.2%) element. This means that, in terms of prenatal education, man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most frequently recall music.

The total percentag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natal education subject was 9.6%. Within that domain, the percentages for the following two sub-types of subjects were: couple (6.2%) and woman (3.4%). The total percentage for the characteristic of time was 7.5%. Within that domain, the percentages for sub-types of time were: after the pregnancy (7.2%) and before the pregnancy (0.3%). The total percentage of the characteristic of purpose was 29.1%. Within that domain, the sub-category percentages were: having an intelligent baby (11%), having a good-natured baby (10.3%), having a healthy baby (3.1%), considering it unnecessary to choose a baby's characteristics (2.7%), and having a good looking baby (2.1%). The total percentage for the characteristic of content or method was 53.8%. Within this domain, the sub-type percentages were: listening to music (21.2%), sharing and enjoying (10.3%), using outside programs (4.5%), making an effort (4.1%), being comfortable (4.1%), communicating (3.4%), and preparing for becoming parents (1.4%).

As the finding of this study note,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can prepare for becoming parents. The results will be used as basic data to create a desirable prenatal education environment with the aim of recovering the original intention of prenatal education, which has been reduced in modern industrial society.

Key words: preparents, prenatal education, image

* Teacher, Pusan National University Educare Center

** Professor,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